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5. 28.(수) 12:00	배포일시	2025. 5. 28.(수) 12:00 배포 즉시
위원장	황정아	담당자	황정아 의원실 02-6788-6141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533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대학 교수, 현장 연구자, 재외 과기인 등 참여
 - “첨단과학기술 대국 도약 위해 이재명 지지”
- 대학 교수, 현장 연구자,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등 과학기술인 533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28일 공식 선언했다.
- 이번 지지선언은 출연(연) 등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현장 연구자들 중심으로, 퇴직 연구원·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등도 함께 참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로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난 몇 년간,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가치를 몰각한 정부 아래 참담한 시간을 견뎌야 했었다”고 말했다.
- 이어 “근거 없는 일방적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학기술인

을 향한 부당한 낙인과 폄하는 과학자들을 좌절하게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다”면서 “연구지원 중단으로 연구를 멈춰야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 이어 “과학이 없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면 산업도, 경제도, 교육도 더이상 나아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과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과학기술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로드맵도 제시했으며,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확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지역자율 R&D등 시급히 실현해야 할 정책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자신을 증명해 온 리더이며, 이재명은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다시 과학자를 꿈꾸는 세상, 그리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위해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동주 교수(충북대학교), 홍진태 교수(충북대학교), 이규필 교수(충남대학교), 김경수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이주한 책임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영주 책임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조재영 책임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김성현 책임연구원(ETRI),

홍승유 교수(순천향대학교), 양응모 교수(경희대학교), 황제익 팀장(한국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정상웅 대표이사(주디피에이치), 최명길 대표이사(주인사이드), 정인실 소장(주포스백스 신약개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 이재명 후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한국형 STEM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AI 허브 기반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 환경 조성,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 별첨 : 사진 및 지지 선언문

기자회견 사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입니다. 대학, 연구소,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평범한 이웃이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가치를 몰각한 정부 아래에서,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참담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일관된 원칙도 없었고, 방향성도 상실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학기술인을 향한 부당한 낙인과 폄하하는 과학자들을 좌절하게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구지원 중단으로 연구를 멈춰야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유능한 젊은 연구자들이 신분 불안으로 인해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과학이 없는 나라엔 미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면 산업도, 경제도, 교육도 더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AI, 양자컴퓨팅, 자율주행이 보여주듯 과학기술, 산업, 경제는 서로 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은 단순한 혁신의 도구를 넘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합리적 사고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엘리트가 큰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사회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다 같이 똑똑히 목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들이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 온 창의와 열정, 그리고 도전과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더이상 과학자를 꿈꾸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과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과학기술 대국으로 우뚝 설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과학생태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기후, 에너지, AI 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과학기술의 거대한 로드맵도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확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지역 자율 R&D 등 시급히 실현해야 할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자신을 증명해 온 리더입니다.

그는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처졌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는 그의 신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신진연구자들이 다시 연구개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후보입니다. 그는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 이라고 말하며,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는 긴 호흡이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가 포기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선배 과학자들이 폐허에서 일으킨 과학 입국을 우리 후배들이 이어가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당연한 사회,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다시 과학자를 꿈꾸는 세상, 그리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위해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대전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5. 5. 28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533명 일동